

플라스틱 · 고무 생산기술 한자리에...

4월9일 제17회 KOPLAS 개최 ... 최신 컴파운드 · 압출 성형기술 소개

제17회 국제 플라스틱 · 고무산업 전시회(KOPLAS 2004-17th Korea International Plastics Rubber Show)가 4월9일부터 13일까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(SETEC)에서 개최된다.

한국이엔엑스와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, 중소기업청, KOTRA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,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,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, 한국재생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열리는 전시회에는 총 15개국에서 146사가 참여한다.

1981년 첫회를 시작한 이래 17회째를 맞이한 KOPLAS 전시회에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플라스틱 · 고무 관련 기자재들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하고 선진산업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상호 기술정보의 교류를 통해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또 LCD모니터, 반도체, 무선단말기 등 플라스틱 · 고무 이용도가 신장됨에 따라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가공기계들의 무인 자동화와 초정밀, 초고속 및 초대형 성형기계 등 기술집약적 기기들의 출품이 높아지고 있으며, 제품가공에 따른 자동화 설비, 그리고 관련부품, 시험측정기기 및 관련 전문서적 등이 출품돼 관련산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참관인들의 의욕을 고취시는 것은 물론 침체된 국내 플라스틱 · 고무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국내에서는 사출성형기, 압출성형기, 브로우성형기 등의 가공기계와 휘더, 온도조절기, 첼리, 취출기, 분쇄기 등의 합리화기기, 인쇄기, 접착기, 절단기, 포장기계 등의 후가공기계, 콘트롤러, 센서, 스크류, 실린더 등의 기기 및 부품, 제품의 시험 및 측정기기, 관련전문서적 및 정보서비스 등이 골고루 출품해 플라스틱 · 고무산업 관계인은 물론 해외 바이어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전시회에 출품하는 주요기업으로 동신유압, LG전선, 우진세렉스, 진화글로텍, 현대성형기, 한국엔젤기계, 성진기계, 유도실업, 대한전기공업, 대한전기기계, 유도스타자동화, 한영닉스, 월드정공, 한국마쓰이, 현대이엔지 등 국내 우수기업들과 유럽의 Arburg, Krauss-Maffei, Motan, Husky, Zambello, 일본의 Nissei, Sumitomo, Toyo, Sanjo, Yushin 등이 준비중이다.

4월12일에는 <압출중공 성형장비의 신기술, Coperion W&P 컴파운드 압출시스템, 압출기술의 적용 및 차세대 장비>등의 주제로 기술 세미나도 열려 개최돼 참관인들의 기술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. 문의 : KOPLAS 2004 사무국 02)551-0102

<화학저널 2004/04/09>